

장흥군 '버섯산업·일자리' 두토끼 잡는다

버섯산업연구·창업 자문회의 중견기능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방안 적극 모색



전남도 담당관과 장흥군 버섯산업 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창업 자문회의에서 버섯산업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논의됐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제공>

장흥군이 지역 버섯산업 취·창업 '허브역할'에 나서는 등 버섯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최근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지역 버섯산업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취·창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남도 지역 취·창업 관계기관 담당관과 군 지역 버섯산업 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주산지 지정된 표고버섯을 비롯해 느타리와 새송이, 상황, 영지 등 다양한 버섯이 생산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체도 대폭 늘어 '버

섯 생산과 산업의 1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장흥군 특산물 실패조사에서 생산자 절반이상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노동력 부족을 토로하고 있는 등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두었다는 것이 장흥군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창업 관계기관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지역 버섯산업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실무형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고용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기회 제공에 필요한 안정적인 로드맵 수립 등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과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버섯산업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교육생 41명을 대상으로 이론·현장실습·직무소양교육이 통합된 '버섯중견기능사 취득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버섯과 관련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창업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원에서 산업체와 협력해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제18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대상작 김정태 작가의 '향기속으로'.

강진군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대상 김정태 '향기속으로'

강진군은 '제18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결과 김정태 작가의 '향기속으로'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청자공모전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뜨거웠다.

평소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던 출품 지역이 대전·충청으로 확대되고 제주·경상 지역에서도 출품 비율이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젊은 도예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강진군은 전했다.

총 116개 출품 작품 중 대상은 김정태 작가의 '향기속으로'란 커피세트가 차지했다. 상금 10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는다. 전통부문 최우수상은 정기봉 작가의 청자양각연판문합이, 디자인부문 최우수상은 최종음 작가의 '도깨비 수집품'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강진청자축제 주무대에서 열린다.

입상작품은 27일부터 8월 26까지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2층 전시실에 전시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장흥 정남진천문과학관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목성·토성 '행성 관측회'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목성과 토성을 관측할 수 있는 '행성 관측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목성은 수소와 메탄의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전속도 차이에 의한 대기의 줄무늬와 소용돌이라 불리는 대적점을 관측할 수 있다.

목성의 수많은 위성 중 갈릴레오 4대 위성인 이오와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도 관측할 수 있다.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인 토성은 얼어있는 메탄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이다.

천체망원경으로 관측 땀 행성과 고리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고리 사이의 카시니 간극까지 관측할 수 있다.

관측회 기간에 관측할 수 있는 여름철 별자리는 페르세우스자리와 거문고자리,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전갈자리 등이 있고 페르세우스 산개성단과 프톨레마이오스 산개성단도 볼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밤하늘에 별이라 생각되던 천체가 책으로만 배웠던 목성과 토성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주가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진다"며 "이번 관측회에서는 목성과 토성 뿐 아니라 금성과 화성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은어아 무럭무럭 자라거라" 지난 5일 장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장흥읍 용산면 남상천에 어린 은어를 풀어 주고 있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용산면청년회원과 군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광양시 소재 청수양어장(대표 장성문)이 시가 5000만원에 달하는 어린 은어 20만 마리를 기증했다. <장흥군 제공>

영암 월출산·뱅뱅이골 기찬랜드 14일 개장

영암군은 자연계곡형 천연 피서지로 유명한 월출산 기(氣)찬랜드와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를 오는 14일부터 개장해 8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 6월부터 개장에 대비해 입장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올 해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입장객

의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확대하고 관광안내소를 추가 설치했다.

또 풀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뱅뱅이골 기찬랜드 주변에는 여름꽃 1만2000본을 식재했으며, 안전사고 대책 일환으로 월출산 기찬랜드 내에 CCTV를 늘리고 여성전용 화장실을 신규 설치했다.

군은 14일 개장식에 맞춰 박원빈과 강

진, 현진우, 지원이, 이혜리, 조승구 등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 관광객과 군민이 참여하는 웰빙 장어잡기 체험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찬랜드는 이제 남도 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여름철 웰빙 피서지이자 관광지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며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시설점검과 주변 환경정비 등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강진군 '한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선정

강진군은 민선 7기 들어 첫 번째 공모사업인 '한골목길 Re-Wind 프로젝트'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국 54곳 중 전남에서 10곳이 선정됐으며 강진군은 '한골목길 Re-Wind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계획을 수립해 커뮤니티 거점 조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사업내용으로 응모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고증을 통한 한

골목길 복원과 동선이 끊겨 연계성이 떨어지는 병영의 우수 관광자원들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친환경 관광이동수단(전기자전거, 전동차) 운영, 마을 해설사 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병영면 주민 협의체, 병영상고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에 계기로 올해 8월에 선정되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영암군 '찾아가는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영암군은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8년도 나눔문화확산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찾아가는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자녀 중 8명을 선정해 언어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언어

발달 치료사가 언어 지연이 심한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이다.

또 가정 내에서 언어촉진 활동을 위한 부모상담과 부모교육도 같이 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은 또래에 비해 대부분 늦는 편이다"며 "전문치료사의 도움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